

한겨레, 혁신 3.0으로 거듭날 것



지난 11월 26일 롯데호텔 에메랄드홀에서 ‘한겨레 초청 회원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치 회장을 비롯한 광고주협회 회원 80여 명과 정영무 한겨레 사장 및 경영 보도 간부진 30여 명이 참석해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정석구 편집인이 ‘한겨레의 혁신과 미래 전략, 왜 한겨레 혁신 3.0인가’에 대한 발표를, 김이택 편집국장이 ‘한겨레의 혁신, 그리고 변화’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사무국에서는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데스크의 역할이 게이트 키퍼와 문제가 있을시 바로잡는 것인데, 한겨레는 분위기상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억울한 점을 하소연하려면 기자는 데스크한테 말하라 하고, 데스크는 편집자한테 말하라 하니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하나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또 “기업들도 고용에 대한 책임감 등 사회적

책임을 느끼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죽기 살기로 혁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한겨레는 대기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기사가 많다. 대기업이 잘하는 점이나 혁신 노력, 그리고 심혈을 기울이는 제품 등에 대한 소개도 인색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당부했다.

이에 김이택 편집국장은 “데스크는 기사의 밸류를 판단하고 출고하는 주체인데, 어떤 문제가 있다면 결국 데스크한테 얘기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소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무래도 경제면 대부분의 기사가 대기업 관련 기사인데, 그만큼 사회적 관심과 역할, 책임 측면에서 대기업의 몫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기업이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한겨레 내부에서도 깊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K A A**

이수지 susie@kaa.or.kr